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 촉구 건의문

의안번호	826
------	-----

발의연월일 : 2003. 3. .

발의자 : 김남원외 3인

1. 제안사유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를 말살하려는 극악한 국가범죄행위임을 인지도와 동시에 그들의 사죄 및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일본정부는 약탈해 간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함.
- 일본정부는 우리 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한 결과 초래된 피해에 대하여 국제법과 도의에 맞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함을 촉구함.
- 국회와 정부에서는 강대국에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함.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 촉구 건의문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강도적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40여년간에 걸쳐 식민지 지배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문화재를 수없이 약탈하였다.

일제는 전국 각지에서 왕릉을 비롯한 옛무덤들과 비석, 옛건물과 석조물들 각종 역사유적들은 마구 파괴하고 고려자기, 이조자기등 옛무덤의 부장품들과 고문서, 서화, 불상, 탑, 민속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수십만점에 달하는 값진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약탈해 갔다.

조상대대로 보존되어 오던 수천수만의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그 문화재들은 일본의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미술품들로 지정된 것을 포함하여 아직도 일본땅에 이루 헤아릴수조차 없을 만큼 많이 남아있다.

이같은 일본의 우리문화재 약탈은 정치적, 도덕적 견지로 보나 법률적 견지로 보나 극악한 범죄행위 였다.

일본에 의한 문화재 약탈의 범죄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우리 민족과 민족의 역사, 민족문화 말살을 목적으로한 국가범죄라는데 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날부터 세계 식민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악독한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것을 주된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의식과 자주정신을 말살하려 하였으며 우리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파괴함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을 무지하고 미개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온갖 획책을 다하였다.

일본이 우리문화재에 끼친 범죄행위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들이 약탈해간 수많은 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문화재는 모두 정당한 수단에 의한 입수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오만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병의 고장이요, 의병의 후손인 우리 15만 제천시민은 고향을 잃고 떠도는 민족의 혼, 조상의 숨결이 배어 숨쉬는 소중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문화재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제천시 의회에서는 이같은 시민운동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가 하루속히 조국의 품에 안길날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일본정부는 약탈해간 수많은 우리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한 결과 초래된 피해에 대하여 마땅히 국제법과 도의에 맞게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1. 국회와 정부에서는 국제연합 유네스코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대국에 약탈당한 문화재반환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3. 3. .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 촉구를 위한
의안발의 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金基祥	金基祥	
劉永和	劉永和	
김충원	김충원	
우정상	우정상	